

재활용 폴리에스터 카시트를 활용한 포드사의 전기자동차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사는 약 이백만 개의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2012년형 포커스 전기자동차 및 타 모델에 활용한다고 발표하였다.



<Ford Focus Electric>

포드사에서는 사용이 끝난 페트병 및 의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섬유로 생산하는 유니피(Unifi)사의 “Repreve” 섬유를 자동차 시트용 원단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포드사의 발표에 따르면, 포커스 전기자동차(Focus Electric)는 차량 인테리어 소재로 재활용 섬유를 100% 사용한 첫 번째 자동차이며, 차량 1대당 약 22개의 페트병을 재활용한다고 한다.

재활용 섬유를 활용한 새로운 자동차는 디트로이트에서 1월 9~10일에 개최된 북미 국제 자동차 전시회(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와 라스 베가스에서 1월 10~13일에 개최된 국제 전자제품박람회(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소개되었다.



<포커스 전기자동차에 사용된 재활용 폴리에스터 “Repreve” 카시트 소재>

포드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12년 포커스 전기자동차는 휘발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포드사의 첫 번째 전기자동차이며, 재활용 섬유인 “Repreve”를 자동차에 사용하는 첫 번째 자동차인 점을 강조하였다.

포드사 관계자는 포커스 전기자동차 개발은 자동차 연비에서부터 재활용 섬유활용까지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포드사 최초의 전기자동차는 2011년 12월 미시간 조립공장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최종 완제품은 3월 출시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화학섬유 기업인 유니피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에서 페트병의 재활용 비율은 유럽의 절반 수준인 약 29%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유니피

사와 포드사의 합작으로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앞으로 폐기물로 버려지는 수백만 개의 페트병이 자원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